

# IEC TC 45 (원자력 계측기기) 총회를 다녀와서

조세환 | 대한전기협회 KEPIC처(coolcho@kepic.or.kr)

2006년 10월 7일 IEC TC 45 국제총회를 가기 위해 인천공항으로 향했다. 지금까지 미국, 캐나다 등 북미 출장만 다녀오다 유럽출장은 처음이라서 나름대로 떨리는 기분이었다. 떨리는 기분은 잠시였고, 12시간을 갈 생각을 하니 앞이 깜깜했다. 그래도 지금까지 경험상 비상구 좌석이 가장 넓기 때문에 비상구 좌석을 확보하기 위해 출발시간보다 4시간 먼저 나가 티켓팅을 하였다. 아뵘사 근데 비상구 좌석이 없다는 대한항공 직원의 차디찬 말을 듣고 포기하려는 차에 갑자기 비상구 좌석이 하나 비어서 비상구 좌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말을 듣고 웬지 이번 출장은 행운이 깃들 것 같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다. 공항을 들어와서 일행을 만나 좌석부터 확인하니 모두 비상구 좌석을 얻으려 했으나 비상구 좌석이 없어서 그냥 좌석을 얻었다는 말을 듣고 역시 행운의 여신은 나를 돕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비행기에 탑승했다. 그러나 이런 나의 생각은 내 좌석을 확인하는 순간 여지없이 깨어지고 말았다. 내 생애 처음으로 프랑스인 중 그렇게 거인인 사람은 처음 봤다. 제발 내 옆자리는 아니겠지라는 희망은 잠시일뿐 갑자기 Excuse me하고 운을 떼더니 딱 하니 내 옆자리에 앉아 버리는 것이었다. 나도 국내에서 한 덩치 한다고 자부하였지만 그 사람들에 비하면 정말 조족지혈이었다. 그래도 좌석 구별이 되니 약간 불편하겠지라는 생각은 그로부터 1시간후에 절망적이

되어 버렸다. 정확히 1시간후 그 프랑스인들은 고개뿐 아니라 몸전체를 내쪽으로 돌린후 코를 골며 자기 시작했다. 상상해 보시라 양 옆으로 프랑스인들이 내쪽을 향해 몸전체를 돌리고 자고 있는 상황...

난 내가 그렇게 인내심이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장장 그 상황을 3시간을 버텼다. 3시간 이후에는 한계점에 도달해서 앞좌석에 있는 스투어디스 좌석으로 대피하였다. 그 프랑스 인들은 어제 무슨짓을 했는지 밥먹는 시간 빼고 잠만 자고 있었다. 스투어디스 좌석으로 대피해서 발펴고 좀 편한히 책을 보고 있는데, 저쪽에서 이쁜 스투어디스가 이쪽으로 오고 있었다. 설마 나한테 오는건 아니겠지라는 생각은 1분도 안돼 무너졌다. 스투어디스는 “손님 죄송한데 이 좌석은 승무원 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앉을수 있는 좌석입니다. 무엇이 불편하십니까?”라고 물었고 나는 대답대신 내 앞의 상황을 손가락으로 가르켰다. 내가 빠진 가운데 좌석을 정점으로 양쪽 거인의 대칭구조를 확인한 스투어디스는 내가 불쌍했는지 자리남는데를 알아보고 알려주겠다고 했다. 잠시후 돌아온 답은 역시 생각한대로 빈 좌석이 없다는 것이었다. 내 생전 기내에서 서서 1시간을 가본것은 처음이었던것 같다. 그래도 이 사람들 밥때 되니까 정확히 일어나더라. 어쨌든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이럴때 쓰는말인지 정말

몰랐다.)라는 명언대로 비행기는 파리 드골 공항에 도착하였다. 기내를 나오면서 좌석 때문에 왔던 스튜어디스가 “즐거운 여행 되셨습니까?”라고 한마디 한다. 내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말하것은 진짜 즐거운 여행이었는지 물어보는 것일까 아님 놀리는 것일까? 나도 웃으면서 한마디 했다. “에이 알면서...”

파리 도착후에 느낀 첫 소감은 입국수속이 정말 간단하다는 것이었다.(미국은 고사하고 신희여행간 싸이판도 여기보다 수속이 복잡하더라) 불어로 물어보면 어떻게지 라는 기우는 잠시 여권만 쓱 보고 나가란다. 입국수속후 목적지인 리옹을 가기 위해 또 국내선으로 갈아타야 했다. 국내선 탑승 Gate를 알기위해 직원복장을 하고 있는 흑인에게 영어가 통하는지 확인도 할겸 “Where can I find a F Gate?” 하고 물어보니 멀뚱하게 나를 보고 있다. 이럴수가, 영어가 잘 안통한다고는 들었는데 그래도 공항인데 라는 생각은 잠시.. 이리다 리옹행 비행기 못탈까 싶어 얼른 리옹행 비행기 티켓을 보여주며 손가락으로 Gate를 가르켰다. 그제서야 알았는지 아무소리 없이 내손을 잡고 F gate 까지 이끌고 가더군. 만감이 교차했다. 영 도착했다. 도착후 짐찾아 나오는데 현지시간 11시가 좀 넘었다. 밖은 어둡고 셔틀버스 타기에는 너무 힘들어 우리일행은 택시를 잡기로 하고 택시를 탔는데 호텔까지 100유로(우리나라돈으로 12만원)가 나왔다. 프랑스 처음 갈 사람들을 위해 몇가지 Tip을 주겠다. 첫번째, 택시, 여기 택시는 우리나라처럼 기본요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캐나 애완동물을 타고 타면 기본요금에 60센트 추가되고 4명이 타면 1.2유로 추가되고 역이나 공항에서 타면 1.2 유로 추가된다. 또 트렁크 사용시에도 1.2유로 추가된다. 우리나라 같았으면 싸움날 일이다. 두번째 호텔, 여기 호텔은 진짜 작다. 말로만 들었지 그렇게 작을줄은 생각 못했다. 그래도 미국이나 캐나다의 경우 모텔만 해도 더블침대 2개에다 커피 세트는 기본이다. 근데 여긴 아니다. 더블침대는 꿈도 꾸지 마라. 싱

글도 무척 작다. 갑자기 파리행 비행기에서 내 옆에 앉았던 프랑스인이 생각난다. 그 사람도 참 살기 힘들겠구나 라는...

미국식 호텔생각해서 일행과 같이 숙박했는데 싱글 침대 두 개 딱 붙이니 공간이 없었다. 커피 세트는 기본이라 생각하고 컵라면 사갔는데 커피 세트가 없어서 매일 아침 로비에서 물달라고 졸라댔다. 호텔로비에 있는 사람들은 영어가 통해서 그나마 다행이었다.

부푼은 꿈을 안고 드디어 회의장으로 향했다. 버스타고 가려고 Congres de Palace를 어떻게 가냐고 물으니 오늘부터 버스 파업이란다. 결국 또 택시탔다. 회의장에 도착하여 내가 들어갈 WG 8을 들어가니 몇몇 국가 사람들끼리 담소하고 있었다. 대충 내 소개를 하고 자리에 앉았다. 정확히 8시 50분부터 회의를 진행하는데 IEC 표준개발을 위한 작업반이라 그런지 정말 열기가 대단했다. 문장내용 뿐만이 아니라 문장이 어디에 삽입되어야 한다는 것 까지 열띤 토론이 계속되었다. WG 8은 총 8개국 11명이 각 국가를 대표하여 참석했는데 역시 표준개발은 아직까지 표준선진국이 주도하고 있었다. 내가 들어간 WG 8은 주로 독일과 캐나다가 열띤 논쟁을 벌였다. 나도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들어왔기 때문에 몇가지 의견을 회의장에서 제시하였으나 캐나다 대표의 반대로 적용되지는 못했다. 어쨌든 점심시간 1시간 30분을 제외하고 6시까지 진행된 회의는 다음날에 진행될 회의에 일부를 남겨놓고는 끝났다. 회의 끝나고 호텔로 가는데 지하철을 타고 가자는 의견이 있어서 지하철로 향하는데 벽들에 무슨 낙서들이 그렇게 많은지 정말 놀랐다. 호기심에 보고가는데 “나 와다가다”라는 한글이 보였다. 맞춤법도 틀린 “나 와다가다” 정말 세계적으로 흔히 볼 수 있는 낙서였다. “나 와다가다”를 의장등록하면 떼돈 벌겠다 싶은 생각도 들면서 고등학교때 배운 훈민정음이 생각났다. “나랏말싸미 등귀에 달아 문짜와로 서르 사맛디 아니할싸 <중간생략...> 내이랄 위하야 어엿비너겨 새

로 스물여덟짜를 멩가노니”

세종대왕은 우리나라 사람뿐 아니라 프랑스 사람들도 어엿비 너졌나 보다라는 생각이 절로 났다. 여기서 어엿비 너겨를 이쁘다는 의미를 해석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라 믿는다. 이 글을 보고도 의미 파악이 안되면 고등학교 교과서를 사서 보든 아님 “나이빠”, “고글”, “야호” 등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 물어보시길 바란다. 어쨌든 첫날은 그렇게 갔다.

2일째 되는날 아침에 일어나서 TV를 켰다. 물론 영어로 하는 방송은 BBC 뿐이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다른 호텔엔 CNN도 나왔단다. 북한이 핵실험했다고 난리 났다. Headline으로 북한이 핵실험을 수행했다고 계속해서 보도되고 있었다. 갑자기 한국에 있는 딸과 와이프 생각이 났다. 금방이라도 전쟁이 날 것 같은 분위기였다. 한국에는 너무 새벽이라 전화도 못하고, 이따 전화해야지 하고 회의장으로 향했다. 그날 난 외국인에게 심각한 문제(Serious Problem)이라는 말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렇게 많이 들었다. WG 8의 멤버들은 당연하고 심지어 SC45A 간사까지도 북한핵을 말하면서 Serious Problem을 연발 하였다. 남들이 옆에서 계속해서 걱정하니까 진짜 걱정되더라. 점심시간에 공중전화로 가서 집과 회사에 전화했다. 앗! 근데 이게 웬일일까? 오히려 한국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 조용한 것 같았다.

3일간의 WG 회의가 끝나고 나니 4일째 SC 45A 총회와 5일째 TC 45총회가 끝났다. 이제부터 이 출장기 주목적인 총회 결과를 알리려고 한다. 지금까지 내용은 잊어버리시고 지금부터 정리한 내용은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을 듯 싶다. WG 8에서 나온 문제는 IEC 규격 제정에 대한 코멘트 사항이라 이것을 말씀드리기 보다는 SC 45A 총회 결과를 주로 기술 하였다.

SC 45A 총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 주요논의내용

### OSC45 문서의 용어 개선

- 2003년 몬트리올 회의에서 특별 그룹(Ad'hoc)의 전문가들이 용어에 대한 제안작업과 권고 사항 제정.
- 2005년말 작업반(Working Group)의 검토와 기본물에 대해 통합정리.
- SC 45 용어의 국제적 일치를 위한 이행 노력 수행.

### OIEEE liaison

- 2003년 몬트리올 회의에서 SC45A와 IEEE/NEPC간 협정 논의.
- 2005년 부산 미팅에서 SC45A 의장은 TC45에 IEC60780과 IEC60980에 대한 IEC/IEEE dual logo 사용을 제안하였고 IEC TC45에서는 dual logo 문서 개발 절차를 완성하여 SMB (Standardization Management Board)에 상정.
- SMB에서는 IEEE간의 협정과 IEC 지침서에 위반되므로 dual logo 사용에 대한 IEC TC 45 제의를 거부.
- SC45A 독일위원회에서는 IEEE 전문가가 IEC 규격개정에 참여하고, IEC 규격이 개정되면 아래 예와 같이 표기하는 방식을 제안.

예 : “IEEE/IEC 60980 Title (IEC 60780 : YYYYY, IDT)”

- IEC SC45A 모든 참여국가에서는 독일위원회에서 제안한 방식을 지지.
- 2006년 리옹회의에서 Ad'hoc 회의를 통해 본건에 대해 각국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IEEE/NEPC 차기의장인 Mr. S. Malcolm(Canada)이 본 회의에 참석하였음.
- 회의결과 SMB의 결정을 참작하여 IEEE-IEC 간의 협약내에서 개발하기로 결정.
- Category D 협약(문서 교환 및 전문가 활동)에

따라 IEC규격을 IEEE와 조화시키기로 결정.

#### OJTC1/SC27 (IT Security) liaison

- 2005년 부산총회에서 JTC1/SC27 (IT Security)와의 협력체계 수립을 위해 SC45A Secretary가 JTC1/SC27회의에 참석하기로 함.
- 작업계획이 상호간 교환되었고 SC45A WG 의장에 의해 JTC1/SC27의 계획이 검토되어짐.
- 2006년 리옹회의에서는 WGA3에서 JTC1/SC27의 용어를 검토하여 용어 및 정의를 서로 사용가능하도록 제안

#### OCENELEC 활동

- CENELEC에서는 방사선 측정에 관한 SC45B의 문서를 유럽기준에서 적용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한 작업업무 수행
- 2002년 까지 SC45B 문서 중 12개 이상이 유럽 규격으로 인용
- 2005년 WENRA(West European Nuclear Regulatory Authorities)에서는 "안전성 참조등급(Safety reference level)"을 편찬.
- CENELEC에서는 BTTF127-1라는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유럽국가 중 IEC/SC45 국가적용 현황에 대한 보고서 및 다른 국가들의 인증절차에 적용되고 있는 문서 작성

#### OSC 45A 신규 P-Member

- 아르헨티나가 기존 O-member에서 P-member로 변경

OIEC 창립 100주년 기념상인 IEC 1906상에 SC45A에서 두 명의 전문가[Mr. Johnson (USA)과 Mr. Hashemian (USA)]를 추천함.

O차기 회의 개최지를 2008년 3월 30일부터 4월 4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개최하기로 함.

여기서 논의된 가장 큰 문제중 하나가 IEC와 IEEE 간의 dual logo 방식 채택여부였다. 국제표준과 미국 단체표준과의 협약 진행에 따라 그 결과가 KEPIC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을것이라 판단되어 출장가기전 가장 중요시 여겼던 부분중 하나였다. 앞의 내용처럼 dual logo는 시간이 좀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국제표준인 IEC가 단체표준과의 dual logo를 통해 미국 기술력을 받아 들이려는 의지가 매우 강함을 알게 되었다.

본 출장을 통해 해외표준제정기관들과의 유대관계 증진과 국내의 표준 인프라 구축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통감한 매우 유익한 출장이었다. 이 기회를 빌어 총회 때문에 바쁜 와중에도 이것저것 물어본 것에 조금도 귀찮은 기색없이 답변해준 SC45A 간사인 Mr. Jean-Paul BOUARD (프랑스)에게 감사 인사드린다. 근데 아마도 한글을 몰라서 내가 고마워한다는 것을 모를듯 싶다. 그래서 영어로 다시 한번 말 할런다. 썬유...

본 출장기는 기술적 자료나 심도있는 내용을 기술하기 보다는 일하다가 잠시 쉬면서 읽으시라고 약간 과장해서 작성하였다. 이 출장기는 원래 저널에 실리기 보다는 내가 아는 지인한테 재미있게 IEC SC45A의 현황을 알리고 나중에 내가 다시 볼때 그 당시의 추억이 생각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끝으로 만약 TC45에 대한 궁금증이나 관련자료가 필요하시면 E-mail이나 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란다.(E-mail : coolcho@kepic.or.kr Tel: 02-6328-6115)